

더불어 사는 사회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제39회 충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9일 청주체육관서 장애인 화합의 장 열려

유공자 표창·공모작 시상·각종 체험 진행

충북도는 19일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청주체육관에서 2천여명의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장애인 시설 등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장애인에게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장애인인권

현장 낭독, 장애인식개선 공모작 시상이 이루어졌다. 식후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천연비누 만들기, 네일아트, 농아인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야외공연 등이 이어진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거북이 마라톤이 행사장 부근에서 진행됐다.

매년 추진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함께 1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

여 각종 행사를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시군, 장애인 시설, 단체 등에서 장애인의 재활의지와 자립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문화·체육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을 통해 장애인에게 희망과 자립, 재활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1일 속초시를 방문한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충청북도 도지사가 속초시에 산불피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철수 속초시장, 이준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충청권 3개 시·도지사, 성금 3천만원 전달

이시종 충북도지사 비롯 산불피해 현장방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청권 2개 시도지사(대전, 세종)와 함께 강원도 산불피해 재해구호성금을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충청권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준희 세종시장은 11일 함께 강원도 속초시청을 찾아 재해구호성금을 전달하고 이번 산불에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은 속초시 장천마을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이웃인 강원도에 예기치 않은

화마가 휩쓸어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며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께서는 힘들겠지만 전 국민이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힘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청 소속 직원 3,500여명은 강원도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호성금을 모금 중에 있으며 향후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호물품은 물론 복구인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물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정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충북도가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 기준 및 조례 개정 등에 나서는 등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장애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개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장애등급제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필요한 생활 지원 및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30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및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 4~6급)으로 구분한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2019년 충북여성인턴 발대식이 지난 1일 충북 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됐다.

2019년 충북여성인턴 발대식 성료

발대식 후, 인턴·파트너기관 워크숍으로 조직 이해·소통 강화

2019년 충북여성인턴 발대식이 지난 1일 충북 미래여성플라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발대식에는 한창섭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비롯, 2019 충북여성인턴과 11개 시·군 및 파트너기관 관계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충북여성인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한 전국 최초의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여성을 위한 맞춤형 여성인턴자랑 창출사업으로, 지난 13년동안 1,056명의 충북여성이 참여하여,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 왔다.

특히 충북여성인턴 사업 파견 직종이

있던 방과후보조교사, 어린이도서관리사, 취업코디네이터 등 정책을 앞서가는 선도적인 일자리창출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결혼과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취업을 포기했던 여성들이 사회로 재진입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경험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여성 취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월 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1개 시군 60명의 충북여성인턴들은 오늘 인턴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청소년지원매니저,

복지코디네이터, 여성취업지원매니저, 사회적기업매니저, 작은도서관 매니저 등 모두 5개분야의 공공·사회서비스 기관에서 각각의 역량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한창섭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발대식에 참여한 충북여성인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충북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파트너기관과 인턴들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어 본격적인 인턴 업무에 앞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산불 피해 성금 모아 전달

2일간 워크숍 진행중 현장 모금 통해 피해 이재민 돕기 모금

충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원기)와 충북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정덕희)는 11일~12까지 1박 2일간 250여명의 충북사회복지사들이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일어난 속초 화재로 행사취소도

거론 되었으나, 산불 화재로 인한 속초 지역의 경제가 나쁘다는 지역의 여론으로 강행하게 되었으며 충북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행사 당일인 이날 현장에서 산불 피해 성금 182만원을 12일 속초시청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사회복지시설에 PC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는 15일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재단 우리지역 임팩트 교부금 봉사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PC 45대를 전달했다.

사랑이 모이면, 희망이 보입니다.

2018년 충북도민들의 사랑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충북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지난 2018년 한해동안 133억원을 모금하여 156억원의 성금을 충북도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기부 상담 043-238-9100 | 지원 상담 043-238-9200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전문모금기관입니다. · 이 공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총 지원금 156억3백만원 (복권기금배분 포함)	아동/청소년 36억6천7백만원	노인 39억7천9백만원	장애인 19억1천6백만원	여성/다문화 6억7천8백만원	위기가정 20억6천9백만원	지역사회 32억9천4백만원
--	----------------------------------	---------------------	-----------------	------------------	--------------------	-------------------	-------------------

사랑의열매
—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
나눔
희망
행복
열매

보은, 도내 최초 고교 '삼시세끼' 지원

예산 3억8천만원 확보... 학생 1인당 최대 100만원 혜택

"학생들 신체발달에 도움... 학부모 교육비 부담도 경감"

보은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비를 지원한다.

보은군은 기존에 무상급식을 하던 초·중학생에 이어 지난해에 고등학교에 자체적으로 준비를 들여 점심을 제공, 도내 최초로 초·중·고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 자치단체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중식)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함에 따라 보은군은 도내 최초로 고등학교 기숙사생의 초·석식비와

기숙사생 외에 석식을 희망하는 학생의 석식비 중 식품비를 지원하게 됐다.

보은군은 이번 초·석식비 지원을 위해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했다.

학생 1인당 연 최대 100여만원을 지원받게 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한편 보은군은 2018년 3월부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정상혁 보은군수가 보은고를 방문해 직접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경 쌀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또한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인제 육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증평 '뽕튀기 사업단' 노인 일자리 효과 '톡톡'

지역농산물 이용한 건강식 참여 인원 30명으로 확대 매출액 7천만원 목표 운영



증평군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 뽕튀기'라는 뽕튀기 제조 사업단을 구성해 지난해 1천6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업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식품제조 판매사업에 뛰어들어 소득증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증평군은 '어르신 뽕튀기'란 명칭의 뽕튀기 제조 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직원 평균연령은 70세이다.

지난해 6월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뽕튀기 사업단은 5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천6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출범초기 제품제조 및 판매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본 사업단은 올해 인원 확충과 다양한 판로 확대에 나섰다.

사업단은 뽕튀기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에 착안해 어린이집 간식으로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대형마트의 로컬마켓에 안정적인 납품과 복지관

홈페이지와 하나하나 물 등 인터넷 판매도 실시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업단이 만든 뽕튀기는 다른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 건강식으로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단은 올해 인력을 30명으로 늘리고 판매매출액도 7천만원으로 높였다. 사업단은 생산공정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생산팀은 개와 콩, 쌀을 선별 세척 손질해 강정을 만들고 판매팀

은 지역축제 및 장날 등에 판매를 하고 있다.

배달홍보팀은 주문 및 납품을 실시하고 상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품도 뽕튀기에서 현미강정, 영양바 등으로 다양화하고 직원에 대한 안전과 차매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순 인력 제공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최초 공립 요양시설... 치매 걱정없는 옥천 실현

지역 내 치매 환자 1천690명 추정... 2020년까지 건립 교육담당·요양보호사 배치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옥천군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충북도내 처음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한다.

군은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옥천읍 교동리 일원에 연면적 2천810㎡(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3월 말 기준 옥천군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5만1천372명의 27.7%인 1만4천244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3월말 기준 1천147명이며 등록되지 않은 환자를 포함해 전체 환자 수는 약 1천69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2년 이내 '치매상병' 진단 또는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노인은 1천25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의료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치매의 공적 관리를 위해 이 사업을 확정짓고 현재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신축 건물 1층에 들어서는 주간

보호센터는 총 40명 수용 규모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배치돼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건물 2~4층에 위치하는 70명 수용 규모의 요양시설에는 전문 의사 간호사가 함께 배치돼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 시설들이 완공될 경우 입소 자격이 있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1천254명의 8.8%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공사를 착공한 후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로 공간을 조성한 뒤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조성 단계부터 이 사업을 제안한 단체와 소통과 의견 공유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1층 437㎡ 규모로 지어질 건물 내부에는 칸막이 없는 융복합 공익사무 공간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회의할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이 들어선다.

옥천군에 '지역공동체 허브 공간' 들어선다

사업비 15억원 투입 '누구나' 조성... 도서관·사무실 등

옥천군에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여공간이 조성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지역공동체 허브 공간인 '누구나'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동네 창고, 폐교 등

비어있는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고용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의 참여공간으로 조성해 활력을 잃

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지인 옥천읍 장아리 일원은 당초 저수지였으나 옥천읍 순환도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매립됐다. 이후 주민과 인근 돌탑산 등산객을 위한 주민쉼터로서 한 편에 정자가 조성됐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아 저활용 공간으로 방치돼 왔다.

이 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이달

불법 주·정차, 주민이 직접 신고한다

증평·보은 안전신문고 등 앱 이용 '주민신고계'

증평·보은군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운영한다.

주요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으로, 24시간 주민신고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인도, 안전지대도 신

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동일한 위치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신고는 위반 일시로부터 3일 동안은 유효하다.

군은 위반 차량에 대해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 단,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휴대폰 앱을 통한 신고 시행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 생활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괴산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드려요"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접종비 70% 지원

괴산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 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재활성화에 의해 일어나며, 발진과 수포가 퍼질 두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젊은 연령층

에 비해 65세 이상에서의 발병 가능성이 8~10배 높으며, 발진이 생기기 전 또는 발진이 사라진 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대상포진 발병률 감소와 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의 7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괴산군민이면 본인부담금 2만3000원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접종이 불가능하며, 대상포진 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경험이 있



는 경우 회복되고 난 뒤 6~12개월 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을 제시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영동, 모든 경로당 혈압측정기 설치

340곳 완료... 건강생활실천 기반 조성

영동군의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해 군비 5

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마을경로당마다 자동혈압측정기를 설치했다. 군은 지난 3월 말부터 자동혈압측정기 설치를

시작해 최근 군내 340개 전 경로당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복지 시책으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영동군이 추진하는 올해 노인복지분야 대표 시책사업이다.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영동군은 심뇌혈관 질환의 선형질환중 하나인 고혈

압 진단 경험률이 2014년 29.4%에서 매년 높아져 2018년에는 38.0%로, 전국 평균 26.5%보다 12%가량 높은 실정이다.

이런 지역의 현실을 인지해 영동군에서는 주민들이 경로당을 찾아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해, 자신의 혈관나이를 알 수 있도록 각 경로당마다 혈압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슬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출생부터 노년까지 적정진료 제공... 보장률 70% 목표 MRI 등 비급여 항목 단계적 급여화... 6조5천억원 투입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 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미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까지 합치면 총 41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같은 재원 투입을 통해 2023년까지 건강보험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

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더 강화한다.

그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 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권력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역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응답해 제도 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지향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계획에 따른 5년간 소요재정은 6조4569억원이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임출산 진료비 등 보장성 강화대책에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에 2조1000억원, 응급실·중환자실 필수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 수가 보상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2017~2022년) 30조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종합계획 전체

예산은 총 41조5842억원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2017년 발표했던 대로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고, 국고지원 규모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 건강보험 적정금이 지속해서 10조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이 발표된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각종 의견이 쏟아졌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매년 법을 지키지 않고 지난해만 해도 2조3000억원을 덜 지원했다"며 "종합계획에 국고지원 부분이 명확해져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혼부부도 난임시술 지원

본인부담률 50%... 만45세 이상 여성도 적용 가능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관련 정책에서 말하는 '부부'의 의미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입을 늘려 건강보험 적정금이 지속해서 10조원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이 발표된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두고 각종 의견이 쏟아졌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매년 법을 지키지 않고 지난해만 해도 2조3000억원을 덜 지원했다"며 "종합계획에 국고지원 부분이 명확해져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 사실혼 건립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서적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서 배제됐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 사실혼 건립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서적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서 배제됐다.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경우(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의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른바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 자체가 어려운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행정서비스, 내년부터 전국서 이용 가능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등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내년 2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소지의 관공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족을 대신해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되면 서류 제출을 면제해 준다.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곳, 세종, 제주) 중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51개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개설

접수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처리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설·운영한다.

과거 사례를 포함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m.go.kr) 로그인 > 참여 오는 9월부터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곳, 세종, 제주) 중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51개 지자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

상황일 경우에는 즉시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12/24시간)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하며, 여성가족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봄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유형·빈도 등을 파악하여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분명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된다.

아울러, 지난 5일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1차 회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여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봄미 채용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활동 중인 아이돌봄미에게도 실시한다.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한다.

정부 '맞춤형 복지멤버십' 제도 추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빠르고 효율적인' 복지 실현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회보장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 개통된 사회

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차세대 시스템에는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해 적시에 사회보장이 실현되도록 하는 기능이 다수 담겼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가칭·명칭 공모 예정)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은 등록자가 조사에 동의한 가구·소득·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임신·출산·입학·실직·퇴직·질병·장애·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도 감지한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묶여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상담·안내를 받고, 신청·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 종류를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늘린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연금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이번달부터 기존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 30만원과 부가급여액을 합쳐 최대 월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성된다. 기초급

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월 8만원, 차상위계층에는 월 7만원을, 소득 하위 70%에는 월 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3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40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17만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장애인

금액이 오른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종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봉사활동 분야**

-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매,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충청북도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13회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진행했다.

13회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 성료

11~12일 이틀간 속초 마레몬스호텔서 250여명 참석
복지현장 정보 교류·도지사 표창... 감성치유 특강도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원기)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제13회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정덕희)가 공동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원기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정덕희 충북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김영석, 안종태 전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등 내·외빈과

250여명의 충북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충북사회복지사 워크숍은 해마다 진행 되는 것으로 올해 13회째를 맞이 하였으며 충북의 민·관 사회복지사들이 평소 업무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해소하고 다른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복지현장의 정보 교류와 의견 교환의 장이 되고 있다. 또 워크숍은 충청북도내 민·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선현장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풀어가며 단합

과 친선을 다지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각계 각층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공이 많고 화합하는 자리이며" 오늘이 워크숍이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함으로써 충청북도 사회복지를 한차원 더 발전시키는 좋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또한 힐링과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특강에서는 감성치유연구소 강윤희 소장의 "마음을 치유 하는 감성치유"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 되었으며, 3부 특강에서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의 '민·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란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이원기 회

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이 자리는 충북지역 사회복지현장에서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사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이며" 오늘이 워크숍이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함으로써 충청북도 사회복지를 한차원 더 발전시키는 좋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또한 힐링과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3회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과다한 업무량과 잦은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웃음과 잠시 쉬를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푸르른 자연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
도서·정보 자료 제공 목적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경, 이하 센터)는 지난 4일 무지개도서관(관장 박성주)과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센터 내 지하 식당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센터의 입주단체 직원들과 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도서 및 정보 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에서 발간한 '충북도민 문화어가 및 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지난 4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무지개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를 보면 충북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그에 따른 기반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구내식당 옆 공간에 센터 입주단체 직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작은도서관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항상 무지개도서관 직원 1인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추천도서, 신간, 베스트셀러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예정이다.



충북노인복지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임회장 좌측 네번째, 취임회장 우측 다섯번째)

충청북도노인복지협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6대 이재석·7대 박은영 취임... 새 도약 발전 기회

충청북도노인복지협회 제6대 회장(이재석) 이임식 및 제7대 회장(박은영) 취임식을 3월 26일 S컨벤션센터에서 내빈, 회원시설장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는 제7대 충청북도노인복지협회의 출범을 알리고 회원의 단

합과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발전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주요 참석 내빈으로 한창섭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권경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본부 지사장, 도내 직능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이재석 전임회장이 우리라이프(주) 권대운 총괄이사, 운영위원 다솜노인요양원 흥연안 원장,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이인성 센터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한창섭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이재석 전임회장에게 충청북도지사 감사장을, 박은영 신임 회장이 이재석 전임회장에게 공로패 및 충청북도노인복지협회 명예회장 추대패를 전달하였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영서동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남당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해 개소식을 가졌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이전 개소식 가져

20년 간 운영하던 사무실서 남당커뮤니티센터로 새 등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3월 27일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천 제천

시장,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을 비롯해 충북 각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제천시울병

원 박미령 이사장, 사회복지유관 기관장,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로템청소년학교 축하 공연, 기념식, 감사패 전달, 테이프커팅 순으로 이뤄졌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1998년 설해 제천시울병원 소유 건물에 무상임대료 사무실을 열어 20여 년 간 운영해오다 장기무상임대 및 장소협소 등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협의회는 영서동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남당커뮤니티센터에 입주했으며 이를 위해 남당마을회와 올해 1월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광영길 회장은 "지난 20년 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제천시울병원 이사장님에게 감사패를 드린다"며 "이번 이전을 통해 협의회는 지역복지 발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형 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도는 '충북도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광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가 충북도의 고령화극복과 독거어르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옥천군 노인복지관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선정

생명사회공헌재단 공모... 저소득 남성 독거노인 지원

옥천군 노인복지관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100세 힐

링센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남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자립과 사회적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요리교실, 교육실 등의 리모델링비, 연간 프로그램 운

영비가 전액 지원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충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충주시노인복지관에 이어 3번째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남부권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요리교실, 휴대전화용, 정리수납,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나는야 우리동네 생명안전지킴이"

충북적십자사, 도내 이통장 방문 응급처치법 보급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회장 김경배)는 12일부터 연중 도내 이통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처치법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응급처치법 보급은 마을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시행해 그 즉시성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첫 번째 감습이 이루어진 보은군 수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는 21명의 이장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열린 눈으로 이론과 실기를 익혔다.

감습을 받은 한 이장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겠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임은경 적십자 응급처치강사는 "이장님들의 교육 열의에 깜짝 놀랐다. 안전의식이 화두인 요즘 시대 흐름이 반영된 듯하다"며 교육 분위기를 전했다. 응급처치감습을 필요로 하는 이장님들은 소속 읍면동을 통해 충북적십자사(☎230-8662)로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 2019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접수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이순희)는 도내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선택 및 편리한 사용을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사회참여

를 위해 힘쓰고자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2019 장애인보

조기기교부사업을 실시한다. 접수 기간은 시·군마다 상이하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보조기기 지원 품목 정보 및 신청 방법 안내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로 문의 할 수 있다.(☎043-265-0401)

돌봄종사자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사업내용

1. 돌봄종사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집단상담, 미술치료, 웃음치료, 안전교육, 의사소통교육, 호스피스교육, 소모임 지원 및 개발
2. 사회인식개선을 통한 건강권지원
좋은 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기 위하여 돌봄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
3.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권익옹호
돌봄 인력의 사회권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돌봄종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

사업기간 18년 9월~ 19년 8월

충북도내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권 증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건강·교육·인식개선·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합니다.



발달장애까지 포괄하는 편의시설 정책 추진해야

법 기준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74.8%에 그쳐... 공공시설 낮고 지역 간 격차 커

장애 유형별 설치율 격차도 문제... 현행법, 정신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조항 없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이다. 이 법 제13조에 편의시설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는 UN의 권고가 작용한 것이다.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아 UN에서는 세계 각국에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증진을 권고했으며, 아울러 이러한 권리증진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편의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었다. 영어의 accessible과 facility에 상응할 만한 용어가 없었다. 이 때 제기되었던 용어가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이라는 의미에서 '편의시설(便宜施設)'이 사용되게 되었다(이성재, 1998; 성기창 · 채철균, 2003 재인용).

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 경각심은 높아지게 되었지만, 편의시설이라는 용어 때문에 무장애 환경창출을 위한 노력이 단지 하나의 시설 설치라는 편견을 갖게 하였다(성기창 · 채철균).

이후 1997년 4월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이 제정됐다. 동법 2조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간단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최윤진 · 박병은, 2017).

이처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란 건축물에 부설되는 단순한 설비나 시설(건물접근권)뿐만 아니라, 이 시설에 접근 가능하기 위한 이동수단(이동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이나 설비, 관련된 모든 서비스(정보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치유이란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을 의미한다. 즉 설치된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의미한다.

2018년 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부터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증진보장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적정설치율이 74.8%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건물접근 등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애인 · 노인 등의 이용이 많은 노유자시설의 낮은 설치율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기숙사, 공원 등 22개 시설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6.3%, 적정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공원의 경우 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상위 5개 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보면 관광휴게시설 86.3%, 80.8%, 판매시설 85.3%, 80.6%, 문화 및 집회

시설운영 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0%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 · 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신축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공공부문 중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 ·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상당수가 소규모 · 노후 상태인 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일 수밖에 없다.

대, 우체국, 보건소 등의 상당수는 소규모 · 노후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설치율 제고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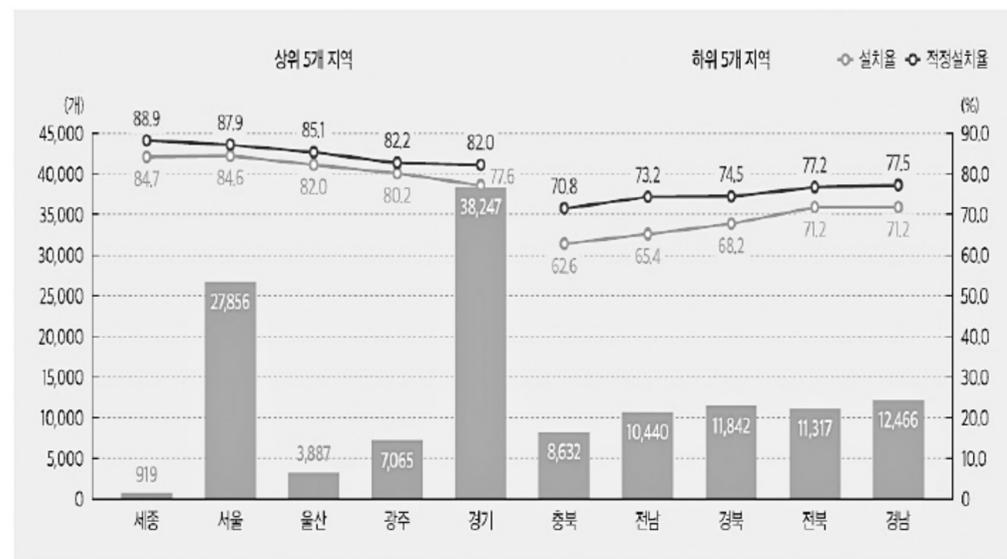
둘째, 시설접근뿐만 아니라 이동, 정보접근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장애인 등이 외부에서 시설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접근성의 제고를 향상해 위해서는 현재 교통약자법(국토부소관)에서 규율하고 있는 도로 · 보도 등 외부 접근환경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 또 이와 더불어 웹접근성 등 정보접근성까지 포함하여 개선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발달장애까지 포괄하는 편의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주로 장애 영역 중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포괄하고 있다.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는 편의시설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도 편의시설은 꼭 필요하다.



〈표 1〉 조사년도별 설치율 비교

조사년도	조사대상	설치율	적정설치율	비고
1998	-	47.4	-	지자체 조사
2003	-	75.8	-	지자체 조사
2008	107,730	77.5	55.8	복지부 조사
2013	141,573	67.9	60.2	복지부 조사
2018	185,947	80.2	74.8	복지부 조사

(단위 : 명, %)

또 현행 법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건물접근, 이동,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18년에 시행됐다. 이 조사는 1998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 등 건축행위가 발생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8만5947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등 23종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2019)를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설주체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연도	구분	대상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018	공공부문	13,347	915,565	734,207	80.2	662,976	72.4
	민간부문	172,595	8,112,406	6,502,834	80.2	6,085,005	75.0
	계	185,947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2013	공공부문	11,973	733,461	539,767	73.6	456,772	62.3
	민간부문	129,600	5,571,913	3,743,912	67.2	3,338,376	59.9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단위 : 개, %)

출처 |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2.25. 배포).

편의시설 설치율 80.2%... 공원 · 노유자시설 낮아

첫째,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의 차이이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구분하고 조사하고 있다. 설치율은적정 또는 미흡 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즉 편의시설 단순 설치 여부 비율을 의미한다. 적정설

개선해야 할 노유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평균보다 낮은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향후 설치율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정신 장애인 위한 편의시설은 배제

셋째, 공공시설의 낮은 편의시설 설치율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율 제고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편의시설 설치율이다.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총 23종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복도(95.1%, 93.1%), 승강기(93.8%, 89.4%), 주차입구 접근로(93.3%, 89.4%)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위생시설 일반사탕(55.0%, 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57.5%, 54.3%)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복도, 승강기, 접근로 등 고정적으로 설치되고 설치 후 변경이 어려운 항목들은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등 시각장애인 유도 · 안내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설치율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발달장애인이 건물에 접근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쉬운 글이나 쉬운 그림으로 정보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재 편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예 조사도 되지 않고 있으며, 필요성도 제기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섯째, 시도간 큰 격차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2013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88.9%, 84.7%)이 가장 높고, 서울(87.9%, 83.5%), 울산(85.1%, 8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충북(70.8%, 62.6%), 전남(73.2%, 65.4%) 등이다.

아울러 직전 조사년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서울(20.7%p)이며, 울산(14.6%p), 충남(13.2%p), 인천(12.8%p), 경기(12.6%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 자치단체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축물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 단위 지역은 교통화 속도가 광역시보다 매우 빠르고, 또한 장애인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시도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 · 정보접근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유자 시설 및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노유자 시설 입장에서 보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싶어도 예산부족 등 현실적 이유로 편의시설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시설개선지원 중 편의시설 확충 또는 BF인증지원을 신설하여 법적 기준을 갖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 중 대표적 생활 밀접시설인 파출소 · 지구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층의 개념을 알지 못해 특정 층(예, 3층)을 가지 못한다고 할 경우, 그냥 장애를 이유로 못가는 것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층마다 색을 정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해당 층을 알리는 색을 칠한다면 발달장애인이 해당 층에 접근하는 데 장벽이 사라질 것이다.

또 우리는 각 방마다 앞에 한글로 된 아르키볼 판을 붙임으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그림으로 표기를 한다면 발달장애인도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서 언어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시각적 표식에 주로 의존하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건물에 접근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쉬운 글이나 쉬운 그림으로 정보를 표기하는 편의시설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 둔 정책 추진 필요

넷째, 시도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도 단위 지역은 교통화 속도가 광역시보다 매우 빠르고, 또한 장애인의 비율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설치율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편의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현재 조사된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율과 반비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안적 조치로서 편의시설에 인적 서비스 제공을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 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니거나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장애인의 접근,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서 장애인에게 인적서비스 제공 등 대안적 조치(대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물리적 장벽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접근성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인적 서비스에 의한 대안적 조치(alternative measure)를 통해 장애인에게 최대한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안적 조치란 물리적 장벽이 절대 제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모든 물리적 제거 방법을 검토한 뒤 어떠한 방법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없다고 결정된 후에만 최후에 고려되는 것이다(배용호, 2018).

여섯째,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신체 · 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전용 디자인이라는 이분법적 편의시설 설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병행 · 조정 또는 특수 디자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재화 또는 환경 디자인을 의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만을 위한 편의시설과 같은 분리는 차별을 낳고 결과적으로 시설의 방치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용화장실만 사용해야 하며(분리), 장애인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용화장실은 창고로 사용되고(분리), 별도의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글작성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석〉

〈출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 4월호〉

칼럼 Column

장애당사자로 혼자 산다는 것은...



권경미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되었다가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의 복지정책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활모델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에서 중증장애인 이어도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립이념이 1997년 이후부터 당사자와 학계, 사회복지 현장들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자립생활센터들이 만들어졌고 체험휴이나 많은 장애특성별 장애인단체들이 힘입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의식이나 지역사회중심의 역동적인 활동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시행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현장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에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인프라 부족과 좋은 지원자들의 네트워크 부족, 자립생활을 하기에 불충분한 소득보장 등 자립생활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숙제가 산적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장애인들을 지원하기만 바라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도전해보고 새로운 제안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자립' 이라고 하면 하면 돈을 벌어야 하고, 음식을 만들 줄 알고, 금전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남들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소위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면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왔다. 장애인들도 당사자가 독립해서 주거를 하고 싶든지, 자신과 관련된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든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도 소극적 참여자로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자립생활을 시작하기에 우선시되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좋은 지원?' 이란 책에서 저자는 '자립생활지원에서 당사자와 지원자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활비이고, 생활을 즐기기 위한 기술이며, 상상하고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조차도 꼭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 한곳에 자리를 잡고 계속 생활하는 일 부터가 우

선은 출발일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나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의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은 이러한 자립생활에서 배제되어 왔기에 일상의 평범함으로 한곳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해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절실한지 모른다.

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경제적 자립, 신변자립, 여가자립 등 당사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을지라도 지역사회 자원연결과 지원자의 도움으로 말쑥 의사소통을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좀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능한 스스로 자기 주변의 일을 거들거나 할 수 있도록, 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장점이 나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미약하나마 지역에서 살기를 시작해 볼 수 있겠다.

비장애인으로 감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제 주위의 누군가가 지역에서 살기를 시작하려 한다면 기꺼이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힘을 보태려고 한다.

정신건강

“봄날의 우울-나만 그런가?”



연현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겪는 감정 중 하나가 우울감입니다. 몇해 전부터 서점에는 위안과 위로의 책이 많아졌고, 너무 애쓰지 말고, 지금 현재를 즐기자는 율로, 소화행 등의 신조어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부분이 위안과 위로가 필요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들이 우울증을 이겨 내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 애석하게도 당신의 마음을 안다는 공감과 당신이 옳다는 인정만으로 우울증이 치료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명문대학 출신에 큰 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우울증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은 당사자의 타고난 특성과 성장배경, 그리고 현재 그를 둘러싼 환경과 문화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우울증은 우리 내 삶의 질병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약물과 함께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관리해야만 치료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에 실패하는 것처럼 항우울제만 믿고 신체 활동을 게을리하고, 수면 위생을 지키지 않고, 건강한 식사를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헛이 무거워도 없고 굳이 무엇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한, 의욕 없는 상태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꽃이 피면서 “여러분 봄이 오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산수유 꽃이 피면서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라고 말하고, 벚꽃이 피면서 “여러분 봄을 즐겨요. 얼른 얼른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철쭉꽃이 피면서 “여러분 이제 봄은 가려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러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엄청 바쁘고, 어정쩡한 워킹홀리데이 동네사람들을 모르고, 나랑은 누가 놀아주지?”라고 언젠가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책하고 놀기도 했는데 요즘은 온종일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커피 한 잔 하러 외출을 할까? 잠시 고민하다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고, 좀 걸을까? 잠시 고민하다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고, 그렇게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어도 실제 우울감이 왔을 때는 대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식하던 무의식하던 습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열렬히 응원해본다.

2019년이 이제 1분기 지났는데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네요. 남북관계는 작년 이맘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고, 국민들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여기 저기 크고 작게 발생하던 화재는 강원도 전체를 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직업이 사회복지사여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일이 생기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봉사활동을 갔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번 강원도 화재 사고에는 겨우 ARS전화로 성금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는 무력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굳이 무엇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한, 의욕 없는 상태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꽃이 피면서 “여러분 봄이 오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산수유 꽃이 피면서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라고 말하고, 벚꽃이 피면서 “여러분 봄을 즐겨요. 얼른 얼른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철쭉꽃이 피면서 “여러분 이제 봄은 가려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러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엄청 바쁘고, 어정쩡한 워킹홀리데이 동네사람들을 모르고, 나랑은 누가 놀아주지?”라고 언젠가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책하고 놀기도 했는데 요즘은 온종일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커피 한 잔 하러 외출을 할까? 잠시 고민하다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고, 좀 걸을까? 잠시 고민하다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고, 그렇게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어도 실제 우울감이 왔을 때는 대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식하던 무의식하던 습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열렬히 응원해본다.

현장의 목소리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조상현
우리들정신건강센터 팀장

시설로 만15세 이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분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가능, 사회적능력, 여가활동기 등을 향상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만족스런 사회적응 및 사회재활을 돕는 이용시설이다.

정신장애인은 질환의 특성상 잔존증상과 만성화로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 사회기술 및 대인관계 부족, 사회적 위축,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규칙적인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개선을 돕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유지 또한 힘들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보다 정신장애인은 사업주들이 고용에 소극적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방송될 때에는 정신질환이 가진 모든 사람들이 위협하다는 듯 편견이 더 심해지고 사업체에서도 고용을 꺼려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의 사회적응 및 욕구충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진행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2017년부터는 매년 정신장애인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체를 개발하고 현

장지도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증상이 악화될 때에는 호의적인 태도에서 180도 바뀌며 피해적인 사고와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하고, 수개월 동안 당사자와 그 가족, 유관기관, 고용공단, 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준비 끝에 취업에 성공 하였으나 하루도 못가 “일을 못 하겠다는데 강요하지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 할 거예요” 등 힘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연계한 기관들과 신뢰문제도 있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오히려 실무자를 원망하기도 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증상 및 일상생활관리와 취업 전 준비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여러 사회복지분야를 경험한 후에 내가 진정 원했던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업무 및 사람관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문제와 고민으로 소진과 회복이 반복된다.

소진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 상태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소진이 우리 일상에서 항상 부정적인 역할을 할까?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탄력성’이 있다!

당사자를 위해 죽을 듯 노력했던 일들이 허무해지는 순간들이 반복되지만 이를 계기로 당사자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 또한 스스로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현재 능력과 수준에 알맞은 욕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소소한 목표를 하나씩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나 또한 반복적인 소진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다. 신입으로 입사하여 비슷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새로운 직무와 동료관계가 보이고 이후에는 정신질환 당사자가 보다 명확하게 보이며 현재는 중간관리자의 입장에서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문구를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마다 보면서 마음을 다잡곤 하는데 오늘도 비슷한 일상에 소진되지 않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문구를 되새겨본다. 그리고 나를 비롯하여 주어진 업무와 사람관계에 지친 많은 실무자분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열렬히 응원해본다.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직무에 적응하고 직장동료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하얗게 불태운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알게 되고 어렵지만 하던 일들도 익숙해질 쯤에는 반복되는 일상에 서서히 소진되어 힘들어하기도 한다. 나를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나 역시 소진과 회복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신재활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홍닥터 사업 안내

법률홍닥터제도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대상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안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원명안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홍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원영안 변호사

Q. 저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변제 기일이 도과하도록 돈을 반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여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돈을 주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대여금반환청구와 사기고소

A.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며,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판결문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서 고의로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상당부분은 이와 같이 사기죄로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채권자에게 변제사를 밝히며 합의를 요청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형사재판에 관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시 이 점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KT&G복지재단]2019년 상상펀드의료비지원 (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아동 · 청소년
- 지원내용 : 치료비 · 수술비 · 재활치료비 · 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KT&G 임직원 모금을 통해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 선정발표 :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 — 온라인 사연신청 : 재단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 사업안내 > 인터넷복지사업 > 상상펀드의료비지원사업 > 사업안내 웹 페이지 하단의 [의료비지원 신청] 버튼 클릭
- 참고 : <http://www.welfare.net>

[KT&G복지재단]2019년 5월 행복가정학습지원 (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아동 · 청소년사업 수행중인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 · 청소년(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 학습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
- 참고 : <http://www.ktngwelfare.org/business/happy>

[KT&G복지재단]2019년 5월 쉼겨의료비지원 (성인)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20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 치료비 · 수술비 · 재활치료비 · 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

복지정보 제공

- 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온라인모금액을 수어 · 점자 · 틀린그림찾기게임 점수후원액과 합산하여 지원되며, 최대보장금액은 100만원으로 지원됨.
- 선정발표 :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
- 참고 : <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

[아이들과 미래재단]2019년도 아동 ·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러브아이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 고액의 의료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
- 접수기간 : 2019년 2 ~ 11월(상시접수)
-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48명(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당해연도 중위소득 80%이내 저소득 가정
-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능한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메일 제출 *개인신청 불가(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병원, 학교 등)
- 신청서류 : 공문1부, 사업신청서1부, 지원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의료적 상황 확인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동기준)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구 소득유형에 따른 증명서류(해당자)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
- 참고 : <http://www.kidsfuture.or.kr>

[한국의료복지재단]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 · 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를 포함(산재승인 여부 무관)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4인가구 기준 월소득

- 4,614,000원 이하)
- 지원내용 : - 치료비(간병비 포함)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건강유지 · 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입원,통원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사항 : 한국의료복지재단 : 02-6212-9753, 02-6212-9755
- 참고 : <http://support.komaf12.org>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 저소득층으로 환자가 있는 사회적 ·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소득수준의 경우 차상위계층 포함)
- 청소년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본 기관 홈페이지 신청접수(홈페이지 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을 통한 제출)
- 제출서류 : <https://www.bokji.net> 홈페이지 참조
- 심사 및 선정절차 : 추천 및 신청(접수 및 심의(후원 및 사례관리(돌봄))
- 문의 : 희망나눔 주주연대 / ☎ 02-3789-2555 / 이메일 : hope@hopeon.or.kr
- 참고 : <https://www.bokji.net>

[한국사회복지관협회]성모자애복지관 개관20주년 기념 장애인식개선 UCC 공모전

- 공모주제 : 장애와 관련한 긍정적인 모든 주제 가능
- 참가대상 : 청소년부부(초·중·고 학생), 일반부부(대학생 이상)
- 응모자격 : 공모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개인(팀)당 1작품
- 접수기간 : 2019년 5월 13일(월) ~ 6월 14일(금) 17시(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mwel9581@naver.com)
- 접수파일 : 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참가서약서(성모자애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 발표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17시(홈페이지 공지)
- 문의 : 02-3410-8853
- 참고 : <https://www.smwelfare.or.kr>

자원 봉사자 모집

- ▶ 무료급식 나눔행사 봉사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4.1 ~ 5.3
전화번호 : 043-234-0840
- ▶ 어린이날 기념 행사보조
관리센터 : (사)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활동기간 : 4.1 ~ 5.2
전화번호 : 043-258-4493
- ▶ 어르신 한글교실 재능기부
관리센터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4.1 ~ 5.30
전화번호 : 043-238-3786
- ▶ 초 · 중등 학습지도
관리센터 : 푸른꿈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4.1 ~ 5.30
전화번호 : 043-238-3786

- ▶ 사무업무 보조
관리센터 :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 4.1 ~ 5.30
전화번호 : 043-284-0103
- ▶ 학습정서지원 멘토링 봉사
관리센터 : 충주보건강가정지원센터
활동기간 : 4.1 ~ 5.30
전화번호 : 043-857-5960
-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활동기간 : 4.1 ~ 5.30
전화번호 : 043-216-0031
- ▶ 교육봉사(영어,수학)
관리센터 : 민들레
활동기간 : 4.1 ~ 5.30
전화번호 : 043-288-5249

-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4.1 ~ 5.30
전화번호 : 043-267-4590
- ▶ 경로식당 배식봉사
관리센터 :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4.1 ~ 5.30
전화번호 : 043-883-247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금빛봉사공연단 "어르신, 미술공연 즐겨요"

문화 · 예술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금빛봉사공연단 단장 김준영, 이하 금빛봉사공연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중가요 및 미술공연을 하였다. 김준영 단장은 "마음이 맞는 사

람들과 모여 즐겁게 봉사를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 봉사단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ccsw@chol.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비상

세상을 바꾸는 도약

2019 TALENT CONTEST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작품 현상 공모전 접수 안내

공모 부문 및 공모 자격

- 공모 대상 : 성인, 장애인(장애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지원 :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공모 기간 : 4월 15일(수) ~ 5월 14일(수) 18:00 까지
- 공모 주제 :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공모 작품 수 : 부문별 1인당 5편(팀) 이내(2개 부문 이상 중복 응모 가능)

접수 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best@naver.com, 후원 전화 상담 가능
- 주소 : (충청북도)충청북도청사 4층 404호 (충청북도)충청북도청사 4층 404호
- 문의 : 043-234-0840 (주)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출 서류

- 작품 응모 신청서 (공모전 접수서) 1부
- 2019년 4월 15일(수) 18:00 전까지
- 2019년 5월 14일(수) 18:00 전까지

시상 내역 (시상내역은 사업예산에 연한될 수 있음)

구분	대상	시상	시상금(팀당)
총액	1명 / 1인당	1명 / 1인당	1,000,000원
총액	1명 / 1인당	1명 / 1인당	1,000,000원
총액	1명 / 1인당	1명 / 1인당	1,000,000원
총액	1명 / 1인당	1명 / 1인당	1,000,000원
총액	1명 / 1인당	1명 / 1인당	1,000,000원
총액	1명 / 1인당	1명 / 1인당	1,000,000원

* 1명 이상 중복 응모 가능 (2019.04.15 ~ 2019.05.14) 18:00 까지 접수 가능
문의 : www.komaf12.org

복/지/만/평

컨트롤 타워

이창신 www.bokmani.com

아무리 주요 인사라 하여도 비행기를 함부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야 비행기 돌려!

그러나 관제탑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잠시 대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게 아니라 지휘 조정하는 것입니다.